

EnCyber 斗山世界大百科事典

다듬이질

옷감의 구김살을 펴고 반드럽게 하기 위하여 방망이로 두드리는 일.

다듬이 다듬질이라고도 한다. 다듬잇감을 다듬잇돌 위에 올려놓고 다듬잇방망이로 두드리거나 홍두께에 감은 다음 홍두께틀에 의지하여 방망이로 두드리면 홍두께가 돌면서 골고루 다듬어진다. 잘 다듬어진 옷감은 다림질한 것 이상으로 매끈하고 구김도 잘 지지 않는다.

다듬이질을 하려면 먼저 푸새를 한 세탁물을 일단 완전하게 말린다. 이렇게 하면 풀이 서고 올이 잘 펴지기 때문이다. 다음에 물을 축이는데, 물을 손에 묻혀 조금씩 골고루 뿌리거나 물을 입으로 뱉는다. 물을 축인 빨래는 대강 접어서 빨랫보에 싸놓아 물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잠시 기다린 후에 솔기를 맞추어가며 다시 접는다. 홑이불과 같은 큰 빨래는 2 명이 맞잡고 잡아당겨 올을 펴면서 적당한 크기로 접는다. 이것을 다시 빨랫보에 싸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한참 동안 밟아주면 온기가 빨래에 고루 퍼지고 구김살도 어느 정도 펴진다. 이렇게 한 다음 다림질이나 다듬이질을 하는데, 다듬이질을 할 때는 보자기에 싼 빨래를 다듬잇돌 위에 올려놓고 1 명이 양손에 방망이를 잡고 두드리거나, 다듬잇돌을 가운데 두고 2 명이 마주 앉아서 맞다듬이질한다. 어느 정도 두드린 후에 펼쳤다 접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빨래는 윤기가 나고 구김이 퍼지며 풀기도 골고루 스며든다.

명주 빨래는 홍두께에 올려서 다듬이질하는데, 다듬잇돌에서 애벌다듬이를 하고 알맞게 마르면 너무 두껍지 않고 편편하게 홍두께에 만 다음 홍두께틀을 이용하여 방망이질한다. 이때는 다듬잇돌 위에 놓고 두드릴 때보다 투명한 음향이 들린다. 방망이나 홍두께는 모두 박달나무로 만드는데, 홍두께는 보통 지름 7~8cm 의 나무막대기의 표면을 곱게 깎아 길이를 들어 매끄럽게 한 것으로 가운데가 약간 굽고 양끝으로 갈수록 가늘다.

砵打ち (다듬이질)

布地の皺を伸ばし、艶を出すようにするために、横槌で何回も叩くこと

砵 (다듬이) 砵打ち (다듬이질) ともいう。布地を砵石の上に置いて砵槌で叩くやり方と、綾巻に巻いてから支え枠で動かないようにして横槌で叩き、

綾巻が回りながら均等に仕上がっていくやり方とがある。砧打ちでよく仕上がった布地は、アイロン掛けしたものよりも滑らかで、皺もなくなる。

砧打ちをしようとするれば、まず糊付けした洗濯物を一旦完全に乾かす。このようにすると糊がきいて、布目がよく伸びるのである。次に水で濡らすのだが、水を少しずつ手につけて均等に撒いたり、水を口に含んで霧吹きする。水で濡らした洗濯物は、ざっと折りたたんで風呂敷に包み、水気が均等に広がるようにしばらく待った後、縫い目に合わせて再び折りたたむ。布団カバーのような大きな洗濯物は、二人が向かい合わせで引っ張り合い、布目を伸ばしながら適当な大きさに折りたたむ。これを再び風呂敷に包み、床に置いて、しばらくの間その上から足で踏んでやると、温かみが洗濯物に広がって、皺もある程度伸びる。このようにしてからアイロン掛けとか砧打ちをするのだが、砧打ちの場合は風呂敷に包んだ洗濯物を砧石に置いて、一人が両手に横槌を持って叩いたり、二人が間に砧石を挟んで向かい合って座り、相互に砧打ちをする。ある程度叩いた後に、伸ばして折りたたむ間に洗濯物は艶が出て皺が伸び、糊気も均等に染み込む。

明紬の洗濯物は綾巻で砧打ちするのだが、予め砧石で少し叩いてから適当に乾かすと厚みがなくなって平らになり、これを綾巻に巻いてから支え枠で動かさないようにして横槌で叩く。この時に叩く音は、砧石の上に置いて叩くよりも透明な響きで聞こえてくる。横槌や綾巻はすべて樺の木から作られるが、綾巻は普通 7～8 cm の丸太棒の表面をきれいに削り、使い慣らして滑らかにしたもので、中央が若干太く、両端にいくほど細くなる。